



월 1회 연재

#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지리산

산 아래서는 봄꽃 땅을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데 산 위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오고 가는 계절마저 초월한 모습으로 만도의 남녘을 지키고 있었다.

백두대간의 끝자리 지리산 8백리 산역(山城)은 전북, 전남, 경남 3개도의 남원, 구례, 신성, 함양, 하동 5개군을 품고 있다.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을 중심으로 서쪽은 칠선봉, 덕명봉, 명선봉, 토끼봉, 반야봉, 노고단으로, 동쪽은 중봉, 하봉, 씨리봉으로 산세를 펼쳐고 있다. 또 주능선과 거의 수직방향으로 내뿜은 해발 7백~1천3백m의 기지능선들도 종석대에서 고리봉, 민북대로 이어지며 대간의 장엄한 기상을 내뿜고 있다.



대동여지도에 합성된 백두대간 흐름도

### 기획을 시작하며

산은 초자연의 인격이다. 스스로 분수령을 이루며(山自分水嶺)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 오고 있는 신맥. 한반도 3천리를 동서로 나누며 뿜어 내린 장엄한 산줄기(山脈)를 우리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부른다.

려암 신경담(1712~1781)은 지리서 <산경표(山經表)>에서 우리나라의 산맥을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나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를 동서로 구분하는 백두대간은 1정간과 13정맥을 품으며 언어 습관 풍속과 의식의 다양한 문화를 일궈내고 있다. 지리산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남한 지역의 백두대간은 지도상으로 약 6백70km에 달하고 행정 구역상 6개도와 10개시, 18개군, 7개의 국립공원과 2개의 도립공원, 60여개의 산과 봉우리들로 형성된다.

산 지락마다 수 많은 전설과 문화유산, 삼의 애환들이 서려있는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 속살에는 부처님의 가

### 대간 670km 문화유산 기행 불교사상·고승·역사 조명 국난극복·민족통일도 기원

르침이 고스란히 배인 사람들이 수 없이 지리잡고 있다.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려는 선인들의 열원이 산맥마다 장엄한 법당으로 지어낸 것이다. 하수도 열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은 백두대간의 산사들은 우리민족 정신을 지탱해온 정신대간(精神大幹)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IMF시대는 쓰디 쓴 시절 인연을 맞아 한 날 물질을 노예로 전락해 버린 업보를 들여다 보고 있다. 허리춤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남누리라 북누리가 대치한지 어언 반세기. 힘차게 뿜어내린 백두대간이 토해낸 절경, 그 아름다운 남북 누리를 자유로이 오고 가지 못하는 이 현실 역시 한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지화상이다.

현대불교신문은 98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백두대간의 지락마다 지리잡은 사람들을 기행하며 국난극복, 민족화합, 통일성취의 열원을 새롭게 발원하고자 한다. 지리산을 시작으로 영취산, 속리산, 이화령과 새재,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미시령과 진부령을 거슬러 올라가며 민족의 스승들이 대간의 속살에 절을 지은 뜻을 조명하고 거기서 발원된 문화와 역사를 되짚어 본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숨결 사이에 스민 부처님과 역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을 캐낼 수 있을 것을 믿으며.

### 용성스님 어록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약수선(止惡修善)의 보통생활,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신앙생활. 어리석음을 굴러서 깨달음을 여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을 하자.

협찬: 대각사·대성사



위성사진으로 보는 지리산 8백리는 장엄한 호국의 도형이다. (사진제공: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 8백리 산자락 호국염불 감돌고...

우리나라의 산을 말할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지리산. 서산대사는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함은 딸아진다(壯而不秀)"고 평했고 <팔역지(八域志)>의 저자 이증환은 '산수론'에서 지리산을 조선의 12대명산 중 하나로 꼽았다. 한반도의 오악 중 남악에 속하며 12종산(宗山)의 하나로도 불린다. <경감록> <삼한산림비기> <도선비결> 등 많은 도참서 <영광서>들도 지리산을 피난과 보신의 승지로 꼽고 있다.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환란을 피하고 새로운 희망을 다진 곳으로 자리해 왔다.

### 피난·보신의 명승지

지리산은 명산인민치 명할도 많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연곡사 산청의 대원사와 법계사는 신라때의 연기(緣起)조사가 창건한 절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연기조사는 인도에서 어머니와 함께와서 지리산에 터를 잡고 화엄사를 창건, 화엄학을 널리 현양했다고 한다. 연기조사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자리인 지리산에 많은 절을 짓고 지리산역이 바로 불국토임을 설파했었다.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 아래의 법계사(法界寺)도 연기조사가 신라 진흥왕5년(544)에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1600m)에 위치한 절이다. 연기조사는 이 높은 곳에서 지리산 자락을 굽어보며 장엄하게 펼쳐진 산경들이 바로 법계의 실상임을 깨달아 그 이름을 법계사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뿜어내려 온 대간의 기상이 마지막 정점을 이룬 천왕봉 아래 법계사가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고려 우왕4년(1380)의 황산대첩 관련 기록은 이 '우연이 아님'을 더욱 여실히 입증한다. 당시 5백여척의 배를 거느리고 현재의 충남 서천지역으로 들어온 왜군은 민가를 휩쓸고 다니며 무차별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고려의 군대가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배를 모두 불

태워 버리자 왜구들은 육천, 영동, 황간, 상주, 선산 등지로 내려오며 약탈을 계속했고 마침내 지리산으로까지 밀려났다. 지금의 전남 운봉(雲蓬)의 저자 이증환은 '산수론'에서 지리산을 조선의 12대명산 중 하나로 꼽았다. 한반도의 오악 중 남악에 속하며 12종산(宗山)의 하나로도 불린다. <경감록> <삼한산림비기> <도선비결> 등 많은 도참서 <영광서>들도 지리산을 피난과 보신의 승지로 꼽고 있다. 그만큼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환란을 피하고 새로운 희망을 다진 곳으로 자리해 왔다.

### 연기조사 5사찰 창건 화엄의 꽃 피워 법계사탑·실상사철불 민족정기 日유출막아

사 일본으로 흐르는 대륙의 기운을 누르고 있다는 풍수사상 때문이었다. 일본군에 의해 폐허가 된 법계사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더욱 파괴됐다. 1981년부터 중창의 말치소리가 울리기 시작해 현재는 법당과 산식각 요소재들이 수더분히 남아 있다.

법계사에는 자연석 바위를 기단 삼아 3층석탑(보물제437호) 1기가

서있다. 높이 3.6m의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이 탑의 높이는 2.5m이며 팔각의 장식은 없다. 보물지정 당시에는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됐으나 최근의 조사에 의해 신라 말의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계사 주지 진옥스님은 3층석탑에 대해 두가지 의문점을 전했다.

### "법계사 흥하면 日망해"

"순탄치 못한 역사를 이어오며 한반도 도굴되지 않은 점과 여러번의 방화를 겪으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스님은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설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계사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보듬는 최후의 보루인셈입니다. 이

는 절이다. 신라 흥덕왕3년(828)에 증각(證覺)대사가 창건한 실상사는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속종 16년 이후로 중창됐다. 천왕봉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실상사 약사전 철조여래좌상은 무게가 4천근이나 되는데 맨발을 새겨져 있는 절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일본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눌러 앉히기 위해서라고 믿어지고 있다.

실상사를 중창한 흥척스님이 도선스님으로부터 "이곳에 절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정기가 왜국으로 건너간다"는 말을 듣고 세운 것이 약사전이다. 실상사 약사전의 철조여래좌상도 법계사의 3층석탑처럼 우리 민족의 기상을 지키는 중요한 상징임을 이해할 수 있다. 약사전의 문창호가 무궁화 꽃 모양이고 그 안에 무궁화 나무가 서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실상사 보광전

안의 범종에도 일본과 관계된 이야기가 전한다. 현종5년(1664)에 제작된 이 종을 치는 부분이 일본지도와 비슷한 문양이 있기 때문이다. 실상사 인근 주민들은 "이 종을 치면 일본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어 일때때 실상사 스님들이 일본경찰에게 문초를 당했다"고 전했다.

### 반도 지키는 정신대간

한 주민은 "실상사는 국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찰로 믿고 있다"며 "실상사가 잘 되어 우리나라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개인의 신앙과 관련 없이 실상사의 존재를 호국의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고 그만큼 자부심을 갖는다.

지리산은 산세가 웅장해서 영산인 것이 아니다. 민족의 정기를 보듬고 찬란한 문화를 지켜내는 반도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살에 새겨진 절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르침을 전하며 민족안녕과 국운번창을 기원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을 지탱하는 정신대간의 실상 그 자체이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일본으로 흐르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막기 위해 조성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위)과 법계사 3층석탑.



산 아래는 봄소식 환상인데 법계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텅빈 사리공을 드러내쳐 쓰러져 있는 삼장사지 사리탑.

### 지리산 폐사지 삼장사지등 논발 방치...보존책 시급

산청군 평촌리에 있는 삼장사지, 부도골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의 계단식은 한가운데에 3층석탑과 괴불대 한쌍이 서 있다.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돼 있는 석탑은 2층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 무너진 채 방치돼 있던 것을 몇 해 전에 복원해 놓았다. 이 탑에 대한 안내판은 민가에 쓰러진 채 놓여 있다. 명

칭은 '대포리 3층석탑'으로, 자정내용은 '보물 제1114호'로 잘못 표기돼 면사무소 직원들이 험아 버렸다. 탑 전방의 오른쪽으로 4백여m 떨어진 밤나무 밭 사이에는 석종형 부도 2기가 쓰러져 있다. 10여년전 도굴꾼들이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돌보지 않아 부도 밑의 사리공이 빈 채로 드러나 있다. 생비량면 농협 뒤쪽 과수원

사이길을 지나면 둔각을 이루는 길가의 비랑위에 29구의 불상이 무리지어 새겨진 독특한 마애불 삼군(경남도 유형문화재 제209호)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00선생', '00부인' 등 각기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남원군 주천면 덕치리 인터마을, 남원에서 정령치로 넘어가는 고개길목 뒷산 너머에 파근

사지가 있다. 석등의 중대석으로 보이는 석재를 비롯 건물기단지, 험리한 돌담장, 외편 등만이 겨우 남아 옛 절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년전에는 도굴꾼들이 포크레인을 이용, 마구잡이로 사지를 파헤쳐 석조물들을 가져갔다고 한다. 당시 도난된 유물이 썩지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있다. 이밖에도 지리산 자락에는 단속사지, 승안사지, 수정사지 등 수많은 사지들이 방치된 채 내버려져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